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16 주일]

2009년 7월 18일

<제 1 독서> 예레미야서 23,1-6 < 나는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이고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세워 주리라.>

<제 2 독서> 에페소서 2,13-18 <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6,30-34

그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33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영성체송] 당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시작: 56 봉헌: 211 성체: 173 파견: 68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박민웅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조은영 베다

다음주 독서: 정순원 베드로가니시오, 권태윤 카타리나

이번주 복사: 강선우 마르가리타, 박경은 요세피나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우명희 카타리나, 신정혜

세레나, 조형준 스테파노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친교실 정리: 3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338

교무금: \$ 240

기타: \$ 17

합계: \$ 595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월 31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7 월 24 일) 저녁 7 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전교지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스승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저마다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였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마귀 들린 이가 멀쩡해지며, 절망에 잠긴 이들이 희망을 갖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외딴곳에서 쉬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쉬자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피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나 스승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외딴곳으로 떠나십니다. 휴식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쉰다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남들은 일하는데 쉬어서 되겠는가.’ 쉽게 이런 생각에 젖습니다. 그러니 바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평상시 여유를 되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삶의 여유는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진정한 여유가 생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 설정도 못한 채 바쁘게만 살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을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처럼 느껴셨다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인생입니다. 사는 것에 매달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예수님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정 그들에게서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분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이 여겨져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서도 관심의 시선을 떼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서 관심의 눈길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의 피로를 어루만져 주시며 동시에 군중의 갈증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정녕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도움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구차하게 손 벌리지 않고 또 굳이 도움을 주려고 애쓸 필요 없이 살면 그만이지 뭐, 안그래? 나 하나 잘살면 그만이지.’

주변에서 가끔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기를 바라면서도 이기적인 사고에 폭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안에 은연 중 그런 식의 사고가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네가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그러니 자네 걱정이나 하며 살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도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세계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 한두 군데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 나혼자 발버둥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아니 지구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나서서 될 일이 뭐 있을까? 그럴 바에야 나만이라도 시간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지. 쉴 줄도 알고 즐길 줄도 알아야지!’

오래 전 부터 이미 길들여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시켜보려는 그런 식의 알팍한 논리야말로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나만 잘살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예외 없이 어느 누구에게서도 눈길을 떼지 않으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자리를 이제 우리가 대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릇 믿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변화해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 <알려드립니다>

❖ 성모회에서 소규모 단위의 김치 판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김치병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분의 김치병이 있으시면 성모회장 임일숙 수사나 자매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 판매와 관련해서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달 캠프 때 사용한 성당 물품 중 아직 소재 파악이 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캠프 마치고 성당 물품을 실어 오신 교우분들 중에, 아직 물품을 댁에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사목회장이나 성모회장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 (7/25) 미사후 공동체가 함께 하는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공동체 저녁 식사를 위해 항상 수고해 주시는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 미사때 7월분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알려드린대로, 6월과 7월달의 2차 헌금은 매디슨에 있는 Multicultural Center 도움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입니다.

❖ 성가대에서 함께 성가를 노래할 성가대원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탤런트를 가지신 교우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교우분들께서는, 한영주 (리드비나) 또는 조은영 (베다) 자매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영성의 향기>

- 성령과 교회

오늘은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형성하시는데 모든 신자들은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은혜, 즉 은사를 베푸시는데 말씀의 은사,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방언, 해석, 식별, 봉사, 격려, 지도의 은사들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도나 전도사와 교사는 그 자체로서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은사가 가장 귀중하다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은 성령의 은사 중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 <바울이>



-유판식 토마스